

꿈이 사라진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has lost its dream

나는 오랜 동안 'W' 일보를 즐겨 읽는 편인데 온갖 기사를 다 꼼꼼히 읽지는 않지만 매일 빠짐없이 보는 것은 사회면의 칼럼이다. 한때 유근일, 김대중 선생들의 날카로운 필치에 반하여 중독이 될 정도이고, 요즘은 박효종 교수나 북거일 선생 등의 예리한 필치에 감동하고 공감하는 편이다. 그들의 필봉은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을 사정없이 질타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분들이야 예리한 필봉으로 사회를 질타할 수 있는 언론의 권력을 부여받았기에 마음껏 그리 말할 수 있고 또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축설계 업계에도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는데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도 건축설계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 살아오다보니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가 되어 길로 말하면 반환점을 돌아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만해도 언젠가 동아일보에 "큰 것은 좋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건축설계 업계에도 불어 닥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기사로 게재한 적이 있는데, 어느 사석에서 대조직의 수장인 친한 선배로부터 "너 아직 힘 좋다. 아직도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라고 응수당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 너는 남들 다 클 때 무엇을 했니? 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커지는 것도 다 경쟁인데 넌 루저(loser) 아니니? 하는 말을 들은 셈이라고 치부했다.

보자, 그런데 요즘은 건축경기가 불경기라 그런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간다. 오죽하면 전에 내게 그렇게 말하던 선배도 본인 소유회사보다 더 큰 회사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가로채간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사무소에, 간까지 작은 사무소의 소장들이 삼삼오오 만나게 되면 하는 말들을 종합하면 이렇다.

"2009년에는 'S' 회사가 설계경기는 거의 다 당선되었다며? 그래서 그 막강한 'H' 회사도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자체 로비 외에 그 뒤에 포진한 대기업의 힘까지 빌려 로비해 일파가는 데는 속수무책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이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침묵 속으로 들은 말들을 접어 넣고 있기에는 이견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이다. 게다가 건축사사무소 뒤에 건설회사까지 포진하고 있는 경우 먹이사슬의 첫 번째인 설계비가 총공사비의 4~5% 라고 하면 그것은 건축사사무소의 최대먹잇감이지만 뒤에 있는 건설사에게는 그 20~25배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기에 건설사차원의 대규모 로비가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사실이 나를 비롯한 많은 건축사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무소들이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 굳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노비신분이면 죽을 때까지 면천이 안 되어 노비로 죽듯이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죽을 때까지 큰일은 손도 못 대보고 갈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천후 로비를 하는 턴키 프로젝트부터 작은 턴키나 마찬가지로 BTL까지 제외하면 소규모 아틀리에 사무소의 영업대상은 정말 한정적이 되는 셈인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ㄸ' 일보에 신춘문에 당선작이 얼마 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건축계에는 참신한 계획안으로 신인이 당선되어 지면을 장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버퍼이다 뭐다 이런데 목숨을 걸고 전천후 길거리 투쟁을 하지 말고 각 분야에 있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그 힘을 몰두한다면 차기 정권창출은 떼어 놓은 당상일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본다.

도대체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